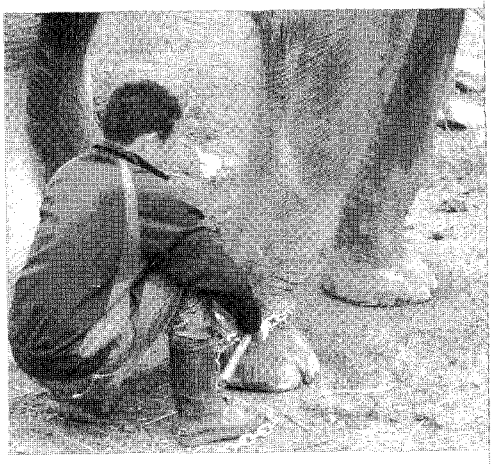
연재
+
새끼 코끼리 '우리'와 '우치'의 기약 없는 이별이야기

최 종 욱
광주우치동물원
lovnat@hanmail.net

새끼 코끼리 '우리'와 '우치'의 기약 없는 이별이야기

모든 국제간 멸종위기에 처한 아시아 코끼리 거래에 대한 지난한 서류와 금전거래까지 마무리 되고 이제는 마침내 9마리의 우리 동물원코끼리가 우리나라를 떠야 할 차례가 다가왔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국부누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소수의 우리 동물원 직원과 본 소유주인 '코끼리 월드' 경영자들만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마 알려진다 해도 크게 관심이 집중되진 않았을 것이다. 서울에 그것도 천하무적이라는 대 강남에 엄청나 수해가 닥쳤는데 코끼리 몇 마리 정도 외국 가는 걸 누가 관심이나 있겠는가? 그렇게 일은 조용히 외부에 새나가지 않고 진행되었다. 코끼리 수송은 일반 동물들 옮기는 거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우선은 그 거대한 덩치를 지탱할 튼튼한 철제 수송상자가 필요했다. 그리고 코끼리 크기에 꼭 맞춘 그 최소한 크기의 상자에 코끼리를 넣은 일도 보통일이 아니었다. 코끼리가 밀실 같은 그 수송상자에서 적어도 24시간은 버텨줘야 하는데, 그 것 또한 큰 걱정거리였다. 우리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 코끼리 대 수송 작전에 매달렸다. 우선

한 달 전부터, 꼼꼼히 기존에 방치하고 있던 수송상자를 다시 고치고 다듬고 보강했다. 더구나 이제는 새끼까지 한 마리가 더 딸린 터라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집어넣을 큰 구획상자를 새로 제작해야 했다. 이 상자 제작은 보기와 달리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데다 업체에 맡기면 원하는 대로 작품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평소 용접과 목공 일에 단련된 조련사중 대장 역할을 하는 '우왓' 을 중심으로 5명의 조련사들이 한 달 내내 그 일에 매달려 모두 9개의 상자를 완성해 내었다. 대개의 세계의 위대한 조련사나 사육사들은 자기 동물에 관한 모든 물품제작과 동물사육장 설계 간단한 놀이 기구 제작까지를 손수 자기 손으로 해낼 역량이 있는 분들이다. 이들 코끼리조련사들도 자국에서 워낙 농사일에 단련된 탓이지 손으로 하는 거라면 어떤 일을 맡겨도 척척 해내는 걸 보고 나와 사육사들은 무척 부러웠다. 그렇게 상자제작이 마무리 될 무렵 드디어 D-데이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통보를 회사 측에서 해왔다. 무언가 움직임이 분주 하길래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마음 한구석이 어디론가 달아나버린 기분이었다.



점점 시간이 번개처럼 흘러가고 마침내 코끼리가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날 오후 2시까지 되었다. 거대한 트럭들이 하나둘씩 동물원에 집결하기 시작했다. 평소 우리 동물원의 건초운반 등의 여러 가지 잡일을 도맡아 해 오신 지게차 기사님도 미리 도착하셨다. 주치수의사인 내가 할 임무도 다행히 하나 주어 졌다. 코끼리 건강을 좀 체크해 달라고 했다. 똥, 오줌, 먹는 상태, 피부주름, 눈꼽, 체온 등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건강진단을 내 딴에 세밀히 시행했다. 모두 다 건강한 편이었다. 지금에서야 뭐, 큰 병만 아니라면 조금 마른 편이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수송 전에 먹이 량을 줄이고, 수송 중엔 과일야채 같은 연한 먹이만 주라고 필요 없는 간섭도 조금했다. 내가 알고, 염려하는 건

연재

+

새끼 코끼리 '우리'와 '우치'의 기약 없는 이별이야기

무엇이든 해 주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나나 우리 동물원 사람들은 그저 묵묵히 나와서 지켜보는 일 이외에는 별로 그들에게 해 줄 일 이 없었다.

코끼리들은 3년 동안 우리 동물원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었다. 그러니 이곳이 참 편안한 장소였을 것이다. 그런 이들에게 갑자기 그 공포의 좁은 수송상자가 내려지고 동료들이 옮겨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충격이었던 모양이다. 대부분이 설사를 줄줄 했다. 더구나 생전 처음으로 새끼 '우치'는 엄마 '쏘이'와 함께 고향 한국으로 거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긴 여행을 해야 했다. 그리고 더욱 더 불쌍한 건 우리 동물원에서 몇 달 전에 매입한 어미 코끼리 '봉'과 그의 새끼 '우리'가 그들과 함께 못 떠난다는 것이다. 봉이와 우리는 먼저 내실에 갇혀졌다. 소는 도축장에 끌려갈 때 운다고들 말한다. 코끼리는 소보다 훨씬 영리하고 민감한 동물이다. 갇히자마자 우리가 먼저 요란하게 울어대기 시작했고 봉도 안절부절 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듣고 우치와 쏘이도 울고, 나머지 코끼리들도 모두 함께 울어댔다. 갑자기 불안감이 전 코끼리들을 엄습한 것이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커다랗고 슬픈 울음소리였다. '불쌍한 우리, 그저 우리에게 남아줘 다행이라고만 좋아했는데, 코끼리 입장에서 보면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 어디가 됐든지 모두 함께 떠나고 싶었던 것이다.'

불안감이라 전염병은 무서웠다. 코끼리들이 도저히 이대론 상자에 순순히 들어가 줄 형편이 안 되었다. 컨트롤이 안 되면 힘으로는 절대 제압할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코끼리였다. 마침내 내가 나서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겼다. 부랴부랴 코끼리용 진정제를 원서를 열심히 뒤져서 준비해 올라갔다. 소에게 주로 마취용으로 쓰이는 '럼푼' 이라는 약이 코끼리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했다. 모든 코끼리에게 5ml~10ml까지 체격과 흥분정도에 따라 근육으로 차등 주사했다. 한 20분쯤 지나자 약효

가 발휘되기 시작했다. 설사하던 애들도 설사를 멈추고, 흥분해있던 애들도 코를 땅에 기대고 졸린 듯한 자세를 취했다.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우선 가장 난제인 어미와 새끼부터 상자에 집어넣었다. 새끼가 제법 기특하게 잘 들어가 주어 어미도 쉽게 따라가 주었다. 계속해서 또 한 마리 집어넣고 지게차로 들고 트럭에 옮겨 싣고, 또 하나 상자가 준비되면 다른 코끼리를 또 한 마리 넣고 내려가고를 기계처럼 반복했다. 8마리째까지 싣는데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2시간이 지나자 진정효과가 거의 사라져 마지막 남은 '잔디' 라는 큰 수컷이 안 들어가고 버티기를 시작했다. 그 전엔 비교적 순하게 잘 들어가던 쉬운 녀석이었다. '저번에는 밥을 안 먹어서 사람을 고생시키더니 이번에는 요것까지 고생 시키네.' 도저히 안되겠어서 5ml 추가마취를 더했다. 그리고 10분후 다시 넣기를 시도했다. 이번에도 저항은 했지만 힘이 소진된 탓인지 겨우겨우 여러 사람 진땀을 빼게 하며 들어가 주었다. 일단 코끼리가 방향을 잡으면 어떻게든 집어넣어야 한다. 버티기를 한 잔디는 수없는 꼬챙이 질과 매질을 당해야 했다. 특히 민간한 부위인 귀 뒤와 코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그러니 왜 버티고 그래?' 그 꼴을 보니 소독약을 발라주면서 목이 메였다. 코끼리들은 좁은 상자에 들어가 네다리가 모두 묶이고 목까지 천장에 묶였다. 좌우로 움직이지도 앉지도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렇게 최소한 일본 동물원에 도착하기까지 최소 20시간은 버텨야한다. 한 마디로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전쟁이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투였다. 차는 늦은 오후 8시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고 기차처럼 9대가 일렬종대로 끝내 우리 동물원을 빠져 나가기 시작했다. 올 때처럼 그들은 말없이 우리 곁에서 사라져갔다. 다음날 아침 안부전화를 하니 무사히 공항까지 도착했다고 한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전화해보니 무탈하게 이륙했단다. 일단 코끼리들이 건강하니 모든 게 잘 되게 보였다.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참 허전하다. 앞으로 한동안 이 허기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둘만 남겨진 외로운 봉이와 우리를 일찌감치 만나러 올라갔다. 이제 코끼리 전담 사육사로 정해진 우리 젊은 두 사육사가 남겨진 뒷정리를 부지런히 하고 있었다. 그 전 조련사들과 한달넘게 예행연습을 했건만 이들도 참 걱정이다. 살짝 들여다보니 봉이와 우리는 아직도 제자리를 돌면서 불안해하고 있었다. 어떻게 조련사들 없이 그들을 돌봐야 할지 우리에겐 너무나 큰 과제가 남겨졌다. 우선은 9마리는 빨리 지우고 부지런히 이 둘에게 정성과 노력을 쏟아야한다. 일본에 이제는 도착했을 코끼리와 조련사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할 수만 있다면 주치 수의사 자격으로 함께 따라가고 싶었으나 허락받지 못했다. 불현듯 조선시대의 한 코끼리가 생각났다. 일본에서 버림받아 우리나라에 왔고 다시 우리나라 여러곳에서 천시 받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 죽은 600년 전 어느 무명 코끼리(조선태종왕조실록에 기록됨), 그리고 600년 후 우리는 우리가 새끼까지 낳게 한 귀한 우리 코끼리들을 또다시 일본으로 무심결에 보내고 있었다. 묘한 역사의 데자뷰가 머릿속을 뱅뱅 돌고 있다.

fin~